

소리(Voice)가 되어도 행복한 사람(2)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93장 다함께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3:22~30 다함께

²²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²³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²⁴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²⁵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²⁶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²⁷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²⁸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²⁹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³⁰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소리(Voice)가 되어도 행복한 사람(2)

2024. 8. 11. 주일예배 설교

“가장 아름다운 승계의 초반 위기”

신구약 역사와 2천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역의 승계가 이뤄진 사례 중, 가장 아름다운 승계가 이뤄진 경우를 꼽는다면, 아마 세레 요한과 예수님의 영적 승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세레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세레요한의 사역이 서로 겹친 시기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세레요한의 사역 후반기에 세레를 베풀 때, 예수님도 신진 일꾼으로서 백성들에게 세레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 갈수록, 세레요한의 자기 영역은 점차 잠식되어 가고, 자기 청중들은 하나 둘씩 예수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내 곧 자신의 권위는 급속히 약해져 가고, 영적권세는 아침 햇살에 안개처럼 사라져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계에도 위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세레요한의 반응”

세레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근본도 약하고 가문의 뼈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종교세계 안에 등장해서는, 자기 스승의 영역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스승의 사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말라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레요한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27절). 그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 이 순간은 경쟁상황도 아니고, 영역싸움도 아닙니다. 정말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담백하게, 그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 그러나 세레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 1cm라도 확장될 수 있다면”

세례요한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단 1cm라도 확장되느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말하는데, “혼인집 신랑과 그 친구비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쇼슈빈>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라 혼인 당일까지 예식 전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식 당일, 마침내 신랑이 오는 음성이 들리면, 그는 뛰는 듯이 기뻐합니다. 비로소 이 결혼식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신랑의 <쇼슈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어떠한 비교의식도, 경쟁의식도, 열등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유합니다.

영혼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하나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이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29절)는 <카라 카이레이>인데, 이는 ‘기쁨을 기뻐하다’, 즉 기쁨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유해 집니다. 은혜는 은혜를 구성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서 이 때부터 서서히 자유함이 생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요일 4:18)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절).

※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내 영역 네 영역이 없습니다. 내 영역도 네 영역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거기 계셨고,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영역으로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전체를 이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이치를 깨달아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 ❶ 본문에 나타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제는 누구와 누구의 승제입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동안 어떠한 이미지나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나누어봅시다.
- ❷ 만약 내가 세례요한이라면, 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례요한과 요한의 제자 중, 어떤 반응에 더 가까운 지 나누어봅시다.
- 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을 통해 단 1cm라도 확장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본문은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위의 공과 내용에 근거해서 나의 기도제목으로 표현해 봅시다.
- ❹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